

아열대과일 전성시대...농가 효자작목 '쑥쑥'

온난화 영향... '나주 한라봉' '고흥 커피' 등 농작물재배 지도 변화 한라봉·비파·석류 등 전남 891곳 재배...비파 생산 면적 89ha 최다

"원래 재배하던 파프리카는 강원도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파프리카 재배비용의 4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애플망고로 작목을 전환하기로 하고 올해 수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박민호(32) 대표가 운영하는 영광 망고야농장에는 전남지역의 애플망고 재배 농업인 30여 명이 모여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지난 2월 출범한 '전남 애플망고 아카데미클럽'은 이날 박 대표의 농장을 방문해 견학과 회원 간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과와 비슷한 모양의 애플망고는 망고보다 당도가 높아 젊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는 2021년까지 1만여 평(3만 3000㎡)에 달하는 파프리카 하우스를 애플망고 재배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는 7월 1000평 규모 면적에서 첫 애플망고를 수확할 예정이다. 그는 "애플망고는 kg당 2만~3만원대 가격으로 팔리는 고소득 작물로 꼽힌다"며 "파프리카를 재배·수확할 때는 20명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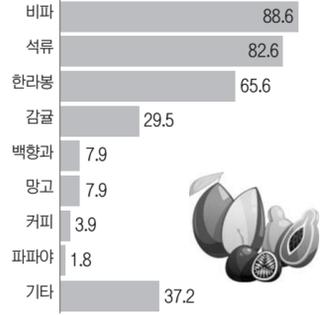
의 인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작물 전환을 통해 인건비의 절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애플망고는 이제 뜨고 있는 작물로 영광에서도 2개 농가만 재배에 뛰어 들었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품종 개발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나주 한라봉', '고흥 커피', '영광 망고' 등도 이제 소비자에게 어색하지 않은 말이 됐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전남 일부 지역은 이미 '아열대' 기후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도(農道) 전남의 농작물 재배 지도도 변화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아열대 작물 재배지도를 새로 그렸다. 나주·영암·무안 등 중부 서해안 지대에는 한라봉·레드향 등 만감류를, 고흥·보성 등 남부 해안지대에는 바나나·애플망고·파인애플·커피 등 7개 작목을, 여수·순천 등 동남 지역에는 백향과·올리브 등 3개 작목을, 담양·장성 등 북부 산간지대에는 파파야·아스파라거스 등 4개 작목을 각각 지정, 단지화·규모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남 주요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

(지난해 말 기준, 단위·ha)



농협 전남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라봉, 비파, 석류, 망고, 파파야 등 주요 아열대 과수 재배농가는 전체 891 농가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고흥 재배농가 수가 287농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완도(180곳), 나주(99곳), 장흥(44곳), 여수(39곳) 등이 뒤를 이었다.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완도 농가 124곳이 71ha 규모 면적에서 비파를 생산하면서 아열대 과수 면적(97.2ha)을 가장 많이 차지했다. 한라봉은 전남에서 180 농가가 65.6ha 규모

로 재배하며 신소득 작목으로 떠올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나주(69 농가·27.7ha)이다. 나주 한라봉은 7~8과 1박스(3kg) 기준 2만~2만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해남(11ha), 고흥(8.5ha), 진도(5ha) 등으로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봉을 제외하고 대표 만감류로 꼽히는 레드향 역시 장흥, 고흥, 장성 등 80 농가(24.6ha)에서 재배하고 있고 천혜향(30 농가·5.7ha), 황금향(7 농가·1.4ha)도 재배지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아열대 채소 부문에서는 주로 쌈채소로 쓰이는 콜라비가 효자작목으로 떠올랐다. 전남 콜라비 재배 면적(32.9ha)은 전체 아열대 채소 재배면적(68.2ha)의 48.3%를 차지한다. 특히 신안(27 농가·20ha), 해남(41 농가·12ha) 지역 재배가 대부분이었다.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아열대작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작목으로 꼽히고 있다"며 "향후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품종별 아카데미클럽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농가별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美中 관세율 인상 조치에 국내 증시 하락세 코스피 저점매수 대응...위안화 환율 관심 원달러 환율 상승에 IT·의류업종 수혜 예상

5월10일 미국관세율 인상조치에 이어 중국도 6월1일부터 600억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25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국 화웨이 견제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했다. 하지만 글로벌증시는 양국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추가관세부과까지 시차를 두며 양국정부가 협상을 지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6월 말 G20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난주에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내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2.48%하락해 2055.80pt까지 내려갔고 코스닥지수도 -1.17%하락하며 714.13pt를 기록했다.

국내증시가 글로벌증시대비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주에 필자가 우려한대로 외국인은 코스피지수에서 5일간 모두 순매수하며 1조1673억원을 순매도했고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지수에서는 매도세가 완화되며 1231억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중순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4월24일 한국 1분기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1150원을 넘어선 후 5월 초 1170원선까지 나홀로 상승을 기록했다. 북한미사일 발사와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위안화 약세와 신중국 증시에서 자금이탈이 가속화되며 17일에는 1195.70원까지 상승했다.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손익에 기준이 되는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지수는 2017년 1월11일 이후 최저점인 832.15pt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환산 코스피지수는 2018년 1월29일 1184.16pt 대비해서 지난주까지 29.72%하락했다. (원화기준 21.14%하락)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인 2011년 이후 고점은 2016년 2월 29일 달러당 1245.30원이었다. 동기간 외국인투자자는 1160원~1200원에서는 주간평균 2000억원정도를 순매도했고 종가기준 1200원이상을 기록한 7번의 경우 주간평균 750억원정도 순매수를 기록했다.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위안화를 비롯한 신중국 통화약세가 동조화를 보이고 있어 원/달러 환율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1250원을 넘어서며 추가약세가 진행되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7년 금융위기와 같은 총체적 위기국면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다. 또한 환율의 장기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전월에 이어 5월에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스피 2050선에서는 매도보다는 보유나 저점매수 전략으로 대응하고 원화와 위안화 동조화가 재개된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 변화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5월말 중국A주의 MSCI EM 지수편입으로 어려운 국내수급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당분간 대형주보다는 개별이슈에 주가가 움직이는 업종과 중소형주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단기 급락에 따른 낙폭과대주의 반응을 이용한 단기전략과 경기영향에 상대적으로 낮은 게임, 인터넷, 미디어,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비중이 높은 IT와 의류업종에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주에는 미중 무역협상 진행상황과 21일 OECD 파월 의장 연설 및 23일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농협 전남본부, 햇양파 특판전 22일까지 고양서 산지가격 판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농협 고양농산물유통센터에서 '전남 햇마늘·햇양파 산지가격 특판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마늘과 양파의 과잉 생산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행사 기간동안 올해 수확한 고흥 주대마늘과 장성 양파를 산지가격으로 판매한다.

17일 열린 개장식에는 김화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고양시지부' 회장과 고흥 녹동농협 양수원 조합장, 장성 삼계농협 김태욱 조합장, 고양시민 등 100여명 참석했다. 마늘과 양파를 이용한 조리 시연회를 통해 양파와인, 양파김치, 양파전, 마늘볶음 등의 요리를 선보이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시식행사가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딸기 따기 체험 재밌어요" 농협 광주본부와 북광주농협은 지난 17일 북구 효령동 딸기재배 농가에서 초등생 80명과 함께 북광주농협의 대표 브랜드 '오메 지산딸기'의 재배법을 배우고 현장에서 딸기를 수확하는 농촌현장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오는 11월까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도농협동 농촌체험을 운영한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우리쌀로 새로운 쌀요리 만들어요"

aT, 쌀요리경연대회 개최...전통주·디저트 등 다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 쌀요리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쌀 소비를 늘리고 새로운 쌀요

리 조리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에 본사를 둔 공사는 이날 나주쌀을 이용한 전통막걸리 만들기 행사 등을 열기도 했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한 '쌀요리경연대회'는 47팀 총 229명이 참가해 쌀을 이용한 다양한 창작요리를 선보였다. 쌀을 이용한 전통주, 제과제빵, 디저트 등 전시품평회 부문에서도 열린 경쟁을 펼쳤다.

최종 수상은 라이브 경연에서는 '더 베스트 오브 셰프'팀이, 전시품평회 부문에서는 '수저락'팀이 해산물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쌀의 새로운 조리법으로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조리법은 공사 블로그(blog.naver.com/gr22nade)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수상 레시피를 공유한 10명을 추첨해 나주평야에서 재배된 '영호진미쌀' 10kg을 증정한다. 이기우 공사 수급이사는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61kg으로, 1988년 연간 쌀소비량이 122kg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이번 경연대회가 쌀의 소중함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